방학

첫 방학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토익학원을 신청했다.

건물 밖은 쪄 죽겠고, 안은 에어컨 때문에 온 몸이 얼 것 같은데

취업 스펙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지.

그게 아니어도 학교 졸업 때문에라도 필요하니까. 파이팅.

한 달 동안 잠시 고딩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살았다.

점수가 오른 기분은 드는데 그에 비해 희생된 게 많은 것 같다…

팀플

팀플, 그 악명은 입학하기 전부터 들어왔다.

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.

기껏해야 한 과목에 한 둘 정도 아닐까?

…… 모든 팀원들에게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. 어째서 바쁜 일이 항상 있지?

나도 시간 없는걸 억지로 만들어내면서까지 하는데.

결국 자료조사부터 발표까지 나 혼자 하게 되었다.

이 과목은 말아먹었다.